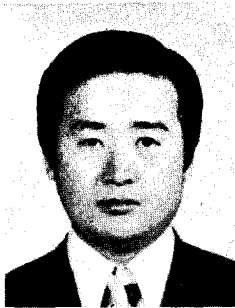


국제사료원료시세 양등우려와 주문배합사료 제도의 적극활용방안

향후 전반적인 사료용소맥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영가의 사료를 양축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 및 학계 등에서 주문배합사료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다.



김 동 수
玉城씨비스상사 대표

〈세계의 곡물생산〉

UN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8년도 전세계 곡물이월재고 예상량은 87년도 이월재고량보다 약 9%(3천8백만톤) 감소된 4억6백만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83년 이래 처음있는 일로써 FAO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일기불순으로 인한 아시아국가들의 작황부진.
- 주요곡물생산국의 경작면적감소
- 곡물수요증가 대비 상대적 불충분한 생산증가
- 제3세계의 보유재고감소 및 소진.

따라서 사료용곡물은 88년도의 이월재고량이 당초계획 2억3천2백만톤보다 9백만톤이나 적은 2억2천3백만톤으로 추정되어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사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용 소맥은 1천2백만톤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어 88년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87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생

산국으로서서는 다행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 크다 하겠다.

(단위 / 백만톤)

년도	'86	'87	'88 (예상)
사료곡물	203	232	223

〈사료용 소맥수급 및 가격불안〉

86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축종에 따라서는 양호한 품질인 사료용소맥은 옥수수 대비 저가로 도입 사용되었으나,

가. 캐나다의 경우 수확기인 최근 전년대비 소맥의 생산량감소와 결실기 및 수확기의 양호한 기후 등으로 인하여 저질소맥(사료용소맥)의 분류가 증가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 향후 88년도에도 사료용 소맥의 수출이 양호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며, 재고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나. 호주 역시 전년대비 약 16.2%

주요사료용 소맥 수출국의 공급 및 수요

(단위 : 백만톤)

구 분	공 급			수 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사료용	국내소비	수출용	
'87/'88년 호 주	4.6	14.0	0	1.3	3.0	13.0	2.6
캐 나 다	13.3	24.8	0	2.3	5.4	21.0	11.2
E E C	13.3	78.9	12.9	24.0	61.4	26.0	17.0
'86년/'87년 호 주	6.0	16.7	0	1.5	3.1	15.0	4.6
캐 나 다	8.6	31.9	0	2.5	6.1	21.0	13.3
E E C	16.1	71.7	14.6	23.6	60.9	28.3	13.3

의 소맥생산량 감소예상으로 인하여 사료용소맥의 원활한 공급과 수출여력이 문제시되고 있고,

다. EEC의 경우 캐나다 또는 호주 보다 사료용소맥의 수출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캐나다, 호주의 상대적 수출여력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또한 원거리 항해 등으로 선임의 고가 등 제반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사료용소맥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문배합사료 적극활용방안〉

주문배합사료란 양축농가가 자기

농장의 사육환경이나 축종별, 품종별, 성장단계별에 의한 영양요구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한 염가구매를 목적으로 양축농가의 주문배합에 의하여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 공급받는 제도라 요약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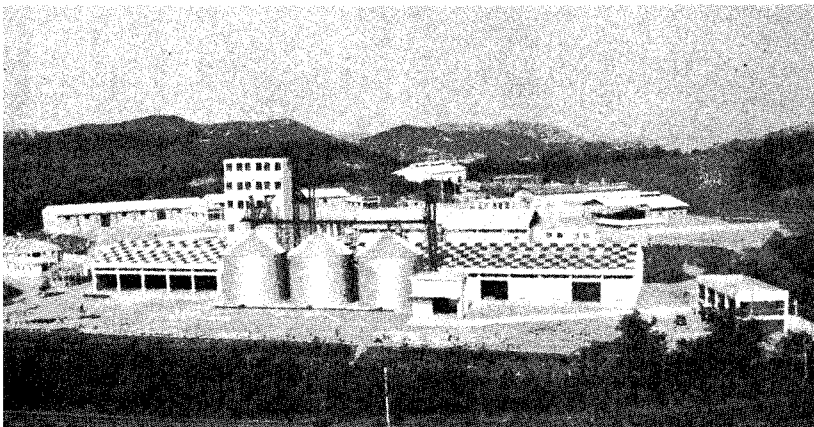
그러나 주문배합사료제도의 시행은 오래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축농가가 배합사료의 원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으며 또한 유관단체 학계 등에서도 등한시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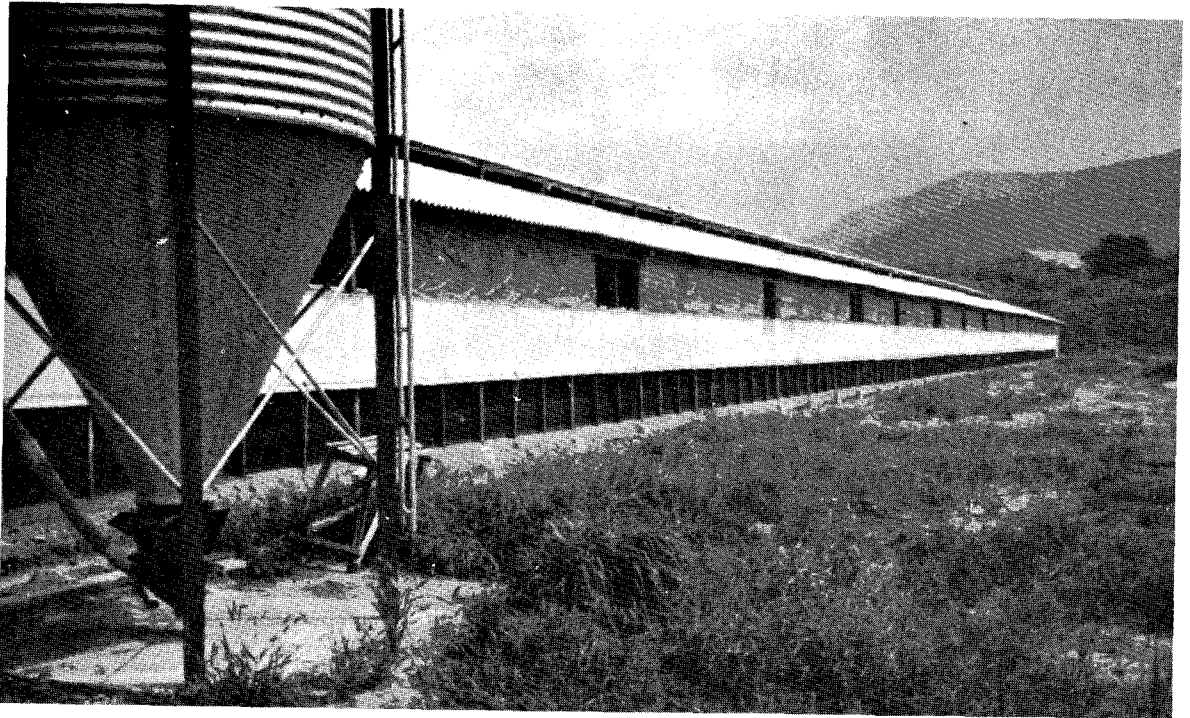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료용

곡물가격의 상승과 축산물가격의 장기침체를 대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문배합사료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축농가가 검토 및 주의하여야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주문배합사료의 기본은 사료공장에서 작성한 배합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 스스로 배합비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와같이 양축농가 스스로 배합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원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알아야하고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을 알아야하는데 이 경우 배합비작성을 위한 기본은 각 원료에 대한 단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A공장 도입옥수수 단가는 ₩90/kg이고 B공장 도입옥수수단가는 ₩95/kg일경우 원재료비압박과 실제 사용배합비는 각각 상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할 것이다. 과거 공동구매에 따른 일괄 배정하던 시대에서 도입원료단가는 동일하였으나 현재 해당공장 쿼터범위 내에서의 직구매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입원료단가는 공장간에 크게는 10%이상의 단가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가중평균단가는 극심한 경우 연중 구매물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연간 10만톤생산 배합사료공장의 경우 연간500,000\$ 즉 4억~5억원의 흑·적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문배합사료생산시 각 원료에 대한 단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최근과 같이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





하는 현실에서 양축농가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원료단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원료에 대한 영양성분과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은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응용하여야 할 것이다. 각 사료공장의 배합기술자의 사고 방식과 실력, 연구하는 자세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도입옥수수의 경우 양계사료에 있어 ME를 "A"공장의 기사는 3,250 Kcal/kg을, "B"공장의 기사는 3,350 Kcal/kg을 기본 설계에 응용하였다고 하자. 60%의 옥수수를 배합한다고 가정할 때 최종 제품에서는 60 Kcal/kg의 편차가 발생할 것이며 실제 가축에 급여했을 때 그만큼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배합사료생산시 각

원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세째: 제조경비 부분이다.

대, 중, 소 규모별 공장에 따라 배합 사료공장의 제조경비는 톤당 약 15,000~30,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최소 15,000원과 최대 30,000원으로 가정할 때 kg당 15원의 원가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25kg 포대당 375원의 제품가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료가격이 공장마다 균일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주문배합시 제조경비가 적은 회사를 선택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네째: 상기와 같은 원료단가, 원료 및 제품의 영양소함량과 가축 요구량, 톤당 제조경비를 알았을 경우 제조업체의 적정마진을 인정하는데

있어 양축가는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정마진은 공동의 발전에 밑거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문배합은 양축가 및 사료공장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양축농가는 상기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거래공장의 관계자와 항시 의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주문배합사료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요즈음과 같이 전문배합비 용역회사의 기술진과 상의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양축농가도 조금만 노력하면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염가의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장기화가 예상되는 축산불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잠깐 생각해봅시다〉



薄利多賣(박리다매)방식에 의한 영업행위는 꽤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온 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 3천~5천수 가량의 산란계를 사육 하면서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3만~5만수의 산란계규모로도 적자경영이라고 올상이다.

경제규모의 확대는 산란계 사육의 근대화와 사육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계란의 염가,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어 오히려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박리다매방식의 결과로 보아야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1차산업 특히,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에 있어 무모한 규모의 확장은 금물일 것이다. 따라서 축산에 있어 사업규모를 확장할 경우 일반상술인 박리다매의 방식을 취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

자기능력에 맞게 적정이윤을 감안한 적정경영방법의 α 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료비도 건지지 못하는 축산경영은 사료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외화 낭비가 아닐까 생각된다... **장혜**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매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 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 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 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⑧3423/4